

방주에서 내려,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8장 20-22절)



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히니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15.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가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류하였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
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
하리라




오전의 부르심: 방주를 지으라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세우는 순종

홍수는 끝났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A dirt road stretches from the foreground towards a bright sun on the horizon, creating a strong sense of perspective and depth.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casting a warm, golden glow across the sky and the road. The road is dark and textured, with visible tire tracks. The sky is a mix of dark and light tones, with some clouds visible. The overall mood is contemplative and hopeful.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집. 창고. 경제 계획. 미래 전략.
노아의 첫걸음은 이것들이 아니었습니다.

A glowing nugget of gold sits on a dark, cracked rock surface. A wisp of smoke or steam rises from the nugget, suggesting it is hot. The scene is dramatically lit, with the gold glowing brightly against the dark background.

오직 제단이었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기도가 끊어지는 신앙




A woman with long dark hair is sitting in a light-colored armchair, looking out of a large window. She is holding a thick, old book with a worn brown cover on her lap. The room is bathed in warm, golden sunlight from the window, creating a peaceful and contemplative atmosphere. The floor is made of wooden planks, and the walls are a light, neutral color.

진짜 믿음은
살아난 뒤에 증명됩니다.



이제 내 삶은 다시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를 넘어선 주권의 고백

A photograph of a cup of coffee on a wooden table. The coffee is steaming, and the scene is lit by warm sunlight from a window in the background. An open notebook with handwritten text and a pen are also on the table.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아침 10분, 하나님 앞에 먼저 앉으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흔들릴수록 주일예배와 말씀 묵상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을 잃은 청년의 결단






제단은 형편이 좋아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단

남편의 무릎, 아내의 용서, 자녀를 향한 축복, 식탁 위의 말씀.

A close-up photograph of two hands clasped together. The hand on the left is dark-skinned, and the hand on the right is light-skinned. They are holding each other in a firm, supportive grip. The background is a warm, out-of-focus interior space with soft lighting, possibly a church or a community center.

교회의 제단 (이주민 사역)

그들의 눈물을 내 눈물로,
그들의 불안을 내 기도로 품는 자리.

일터의 제단

정직, 약자에 대한 존중,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제단은 다음 계절을
여는 문입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돌아가기 마십시오.

살아남았다면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주님, 살려 주셨으니 이제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내 가정, 내 상처, 내 사명 위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결단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주신 은혜 앞에 나를 드립니다.